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64호 【루게 제 26138호】 주제 107 (2018)년 9월 21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 사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삼천리강토를 한 지맥으로  
 안고 거연히 솟아 빛나는 민족  
 의 성산 백두산이 반만년민족사  
 에 특기할 격동의 순간을 맞이  
 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온 겨레  
 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북남수뇌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9월 20일 오전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와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우리측 간부들과 남측수행원들이 함께  
 올랐다.

이 땅의 일반산악을 거느린 조종의 산 백두산  
 은 하늘높이 솟아오른 뾰부리마다에 평묘한  
 정기를 내뿜으며 자기의 웅자를 한껏 드러내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백두련봉에서 제일 높은  
 장군봉마루에 서시여 웅건장중한 령봉들의  
 거창한 산악미와 거울처럼 맑고 푸른 전지  
 호반의 장쾌한 전경, 민족의 혈맥인양  
 련련히 뻗어간 전리수해를 오래도록 부감  
 하시였다.

문재인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넋과 기상이 어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  
 대통령내외분과 함께 전지에  
 내려가시여 호반을 거니시며  
 백두산에 오른 소감을 나누시  
 였다.

전지호반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  
 대통령내외분과 함께 또다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백두산의 장군봉과 천지  
 호반에서는 북과 남의 인사들이 서로 어울  
 리며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펼쳐  
 졌다.

북남수뇌분들께서 민족의 상징인 백두산에  
 함께 오르시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에 뚜렷한 자욱을 아로새기신것은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남측수행원들도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에  
 본사정치보도반





# 문재인 대통령과 일행 평양을 출발

역사적인 북남수뇌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친 문재인대통령이 20일 아침 백두산탐승을 위해 평양을 출발하였다.

남측공식수행원들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김재현 산림청 청장,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 처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실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특별수행원들인 각계인사들이 함께 떠났다.

평양국제비행장과 수도의연도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뜻깊은 평양방문을 마치고 떠나는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을 열렬히 환송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와 외무상 리용호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능오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대동지,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차희립동지가 비행장에서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을 전송하였다.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에게 녀성근로자들이 꽃다발을 드리었다.

우리측 간부들이 남측인사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을 태운 비행기는 삼지연을 향하여 리륙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문재인대통령과 일행 삼지연에 도착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을 삼지연비행장에서 맞이하시였다

은 거례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민족의 성산 백두산탐승을 위해 9월 20일 삼지연에 도착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을 맞이하기 위하여 삼지연비행장에 나오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동지, 인민무력상 룡군대장 노광철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량강도당위원회 위원장 리상원동지, 량강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성국동지가 비행장에 나왔다.

오전 8시 15분,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을 태운 비행기가 삼지연비행장에 착륙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와 반가운 인사를 나누시였다.

남측공식수행원들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김재현 산림청 청장,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 처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중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실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특별수행원들인 각계인사들이 함께 왔다.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에게 학생소년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삼지연군인민들이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부인, 수행원들과 함께 백두산을 향하여 출발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을 위해 삼지연에서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을 위해 9월 20일 삼지연못가에서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오찬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 청장 등 남측수행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동지, 인민무력상 룡군대장 노광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를 비롯한 우리측 간부

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오찬회장에 나오시자 참가자들은 열광적인 박수로 맞이하였다.

오찬은 동포애적이며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오찬에 앞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삼지연못가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은 백두산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삼지연의 못가에서 산책하시며 환담을 나누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문재인대통령과 일행 삼지연을 출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비행장에서 문재인대통령을 배려워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귀로에 오르는 문재인대통령과 작별하시었다.

9월 20일 오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삼지연비행장에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동지, 인민무력상 북군대장 노광철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량강도당위원회 위원장 리상원동지, 량강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성국동지가 비행장에 나와있었다.

문재인대통령을 환송하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함께

문재인대통령은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다.

문재인대통령내외분에게 녀성근로자들이 꽃다발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뜨거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시었다.

삼지연군인민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은 비행기에 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내외분을 따듯이 배려워주시었다.

북남수뇌분들의 역사적인 9월평양상봉과 회담은 북과 남이 손잡고 마련한 귀중한 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며 북남관계를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서 가속적으로 발전시켜 통일대업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획기적전환점으로 되었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 중요대상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요대상건설을 성실성으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보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훈을 훌륭히 구리는것을 공민의 혁명적의무로 새겨안은 창공유치원 원장 전창숙은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많은 후방물자들을 216사단에 보내주어 돌격대원들을 위훈장조례로 고무하였다.

만경대 구역식료품종합상점 로동자 최청미도 영광의 땅 삼지연군을 혁명전통교양의 대로전박물판으로 전변시키는 사업에 순결한 량심을 바쳐갈 일념에 건설에 필요한 기공구들과 물자들을 지원하였다.

백두산아래 첫 동녘에서 로동당만 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를 울려 퍼지게 할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돌격대에 탄원한 황해남도교수장승소 편집원 김일봉은 들끓는 전투장에서 총정의 구슬땀을 바치였으며 너뎡중앙에 출진전대 배우 김금광도 건설자들의 생활에 뜨거운 정을 기울였다.

혁명의 성지에 참된 삶의 자욱을 새겨 갈 일념으로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연구사 김성민, 황해북도김일성화장정밀화위원회 로동자 양은희는 물질방면의 지원으로 대상건설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돌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락랑구역 통일거리2동 33인민반 윤석근은 넉넉한 몸이지만 특류영예군인인 딸과 함께 황해남도물길공사장에 여러차례 찾아가 돌격대원들속에서 경제선동도 벌리고 지원사업에도 성의를 다함으로써 총정과 애국의 가풍을 변함없이 이어가

고있다.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는 시대의 벽안 승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해중중동학원 로동자 손옥영은 물길공사를 다그쳐 끝내는데 필요한 많은 자재와 후방물자들을 보내주었다.

평안북도인민병원의 의사 김명진은 현장 치료활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돌격대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앞장섰으며 해주려객버스주차장관리소 감독원 리명일도 건설자들과 함께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우는 심정으로 물길공사를 돕는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부강건영을 위해 적극 헌신해갈 애국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김정은동지

존경하는 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을 맞으며 구바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구바공화국 내각 수상

### 미겔 디아스 카넬 베르무데스

2018년 9월 9일

아바나

## 행복의 보금자리

《저렇듯 시름없이 웃고 떠들며 즐기는 사람들이 정말 평범한 근로자들이 옳은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선의 현실은 나에게 꿈의 세계로밖에 안겨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모든것은 사람의 가치와 인생의 행복이 돈에 의해 결정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기때문이다.》

이것은 언제인가 문수물놀이장을 찾았던 외국의 한 인사가 떠난 진언이다. 문수물놀이장에 사람이 아니다.

건설의 대변영기라는 그 부름과 더불어 일떠선 행복의 거리들, 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찾는 외국의 벗들은 한결같이 우리 인민의 복받은 생활에 대하여 부러움과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하다면 이 땅에 펼쳐지는 그 모든 현실들을 놓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럽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제 102(2013)년 9월은 과학자거리가 준공되었을 때에 있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돌이켜보곤 한다.

그때 새 살림집에 입사한 과학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한마음을 담아 그에게 삼가 편지를 올렸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편지를 보내주시고 축하합니다. 모든 가정들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라는 친필을 보내 주시길 아저 달았으라.

우리 원수님의 뜻깊은 친필을 받아안고 과학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격정의 눈물을 흘리었다.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금방씩에 앉혀준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과학자들에게 금방씩과 같은 집을 지어주어 지기시 생활하게 하라고 하시며 몸소 살림집건설계획과 설계를 지도해 주시고 현지지도로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건설정형을 수시로 알아보시며 해당한 대책들도 세워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마감공사가 한창 진행되고있던 때에는 몸소 건설장을 찾오시어 바닷치리는 어떻게 하며 부엌에 타일을 붙여주는가, 마감재는 어떤것을 쓰려고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손색이 없이 잘 꾸려주는데 대하여

본사기자 정순화

거듭 강조하신 우리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속에 마련된 은하과학자거리였다.

이렇듯 훌륭한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고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따뜻한 축복도 보내주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말 못 붙같은 사랑이 어찌 은하과학자거리에만 깃들여있다고 하랴. 건설자들과 누구에게든 물어 보시라.

그토록 짧은 기간에 외한한 새 거리들을 련이어 일떠세우실 원천은 무엇이며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전하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그들은 이 땅에 수를 쳐림 일떠서는 시대적건축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사랑의 고귀한 결정체라고 진정에 넘쳐 대담한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속에 끝없는 행복만을 누려가는 이 나라 공민들이기에 누구나 한소리처럼 이렇게 뛰친다. 우리 원수님의 품이야말로 이 나라 천만군민이 영원히 안겨살 삶의 요람,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본사기자 정순화

## 우리의 기준

없던것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무대벽에 설치한 전광판을 조금 내리우고 그우에 자막을 설치 해주면 자막으로 공연종목과 조교사의 이름도 소개하고 공동어가 어떤 동작을 수행한다는것을 비롯하여 공연내용에 대하여 관람자들에게 설명하기 좋을것이라고 하시었다.

해당 일군들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순간에 포착하시고 해결책을 밝혀주시는 그이의 예지에 모두가 탄성을 올렸다. 이어 바다색갈과 같이 푸른색

으로 되어있는 무대쪽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행한 일군에게서 무대가 국제적기준에 부합되는가고 물으시었다.

일군은 그렇다고 말씀했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우리 일군들은 공동어판의 무대가 아주 손색없이 꾸려졌다고 자부하고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신께서는 반대라고 하시며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것이였다. 공연무대바닥

에 다른 나라들에서 한것처럼 청색을 칠하였는데 모래볼과 같은 색을 칠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무대의 배경을 바다기슭으로 형성하였기때문에 무대바닥을 모래와 같은 색깔로 처리하면 조화가 더 잘될수 있다. 공동어판무대를 국제적기준에 맞추어 청색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 해도 우리의 미학적감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의 미학적감정에 맞게 하는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다. ...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뜨거워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모든 사업에 앞서 먼저 우리 인민을 생각하시며 세상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것을 안겨주시려 그처럼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속에는 사업에서 철칙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금언이 깊이 새겨지고있었다.

우리 인민의 미학적감정에 맞게 하는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다!

본사기자 김 일 권

## 주체건축발전의 길에 새겨진 이야기들

### 바로잡아주신 도시총계획작성원칙

주제 74(1985)년 4월 초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로 만든 평양시총체회모형사판을 보이주시었다.

한동안 사판우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재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가리키시면서 저것이 무엇인가 물으시었다.

한 일군으로부터 산업지구 표시해놓았 것이라는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평양시에 산업지구를 어느 한 지역에 집중시킬 필요가 없다고, 산업지구를 집중시키면 로동자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불편이나 줄수 있으므로 도시중심에는 가스병세가 나거나 기계소음이 요란하게 나고 물품량이 많은 공

장들은 짓지 말아야 한다고 이르시었다. 그러시면서 그런 공장들을 시밖에 내다짓는것은 도시건설에서 지켜야 할 하나의 원칙이라고 강조하시었다.

일군들의 생각은 같았다. 이때까지 일정한 지역에 산업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것이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에는 평양시를 품에 안는 락연의 도시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조건을 갖춘 훌륭한 도시로 꾸려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경건히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참다운 우리 식의 도시총체작성원칙이 뜨겁게 새겨지고있었다.

물으시었다. 일군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어느 한 나라의 소년중전보다 열차하다고 말씀 올리었다.

그의 말을 긍정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궁전이라고, 건물의 크기도 제일이고 건물의 종자도 제일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건물에도 종자가 있는가고 말씀드리었다. 그이께서는 일군에게 건물도 종자를 찾으시고 그 사상주체적 내용을 건축미학적으로 잘 형성하도록 이끄시는 우리 장군님은 정녕 위대하고 훌륭한 건축의 영재이시라고.

이들을 한눈에 안는듯 한 부드러운 곡선건물이 이 세상에 태어날수 있었다고 뜨겁게 표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건설에서도 종자가 명백하고 독창적인것이여야 훌륭한 기념비적건축물이 태어날수 있다고 하시었다.

일군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격정의 웨침이 터져올랐다. 하나의 건물을 형성해도 독창적인 종자를 찾으시고 그 사상주체적 내용을 건축미학적으로 잘 형성하도록 이끄시는 우리 장군님은 정녕 위대하고 훌륭한 건축의 영재이시라고.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과 부리중전에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많이 일떠세웠다고 하시면서 지난 시기같은 몇년동안에 하여야 할 건설을 한해에 다 하였는데 대하여 크나큰 자부심에 넘쳐 말씀 하시었다.

잊지 못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일군들앞에서 우리 인민들을 더욱더 행복하게 하시려는 자신의 절절한 심정을 이렇게 털놓으시었다.

다음해에는 건설의 대변영기를 펼쳐려고 합니다. 소박하고 근면하며 혁명적인 우리 인민들에게 무엇을 더 해주겠는가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인민을 위한 건설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참으로 뜻깊은 말씀이였다. 일군들은 인민사랑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건설의 대변영기를 끝없이 펼쳐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었다.

본사기자 립 정 호

## 김영남 동지에게

### 도이칠란드련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평양 9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

영남동지에게 피트 코르넬리우스 헬트만 주조 도이칠란드련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외무부 부상 최희철동지와 도이칠란드르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당의 령도따라 세기적인 변화를 이룩해가는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김광림 적음

